# 명상활용 · 불교문화증진 신축년 불교계 '新사업'

**12월 2일 국회서 예산 통과**
**문체부 예산 등 '95+α' 증액**
**문화재보유사찰 긴급 지원 등**
**전각 · 성보문화재 보존 활용**

**명상활용 · 영화제 예산도 편성**
**운문사문화체험관 건립 추진**

국회가 내년 정부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558조 원으로 가결했다. 코로나19 현안으로 꼽혔던 불교 관련 예산도 95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명상 활용 · 산사문화재 활용 · 불교영화제 등의 사업에도 예산이 편성돼 내년도 불교계가 추진하는 명상 · 문화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총무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재정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재 보유사찰의 긴급지원과 전통사찰보수 정비 등에 대한 지원이 예산에 반영됐다.

'문화재 다량소장처 문화재 유지를 위한 긴급 지원' 예산에는 56억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됐다. 이는 코로나로 인해 사찰의 재정이 악화됨에 따라 문화재 보존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사찰들에 대한 지원예산이다. 실제 문화재보유사찰들은 문화재 관리 인력을 그대로 고용유지하며 성보를 관리해 왔지만, 이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조계종에서는 지속적으로 문화재 보존 · 관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해줄 것을 정부에 꾸준히 요구해왔다.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및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에는 38억 5000만원이 편성됐다. 이에 따라 내년에 책정된 전통사찰 보수 정비와 방재시스템 구축에 부담할 사찰 자부담 20%인 74억 원을 10%로 낮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내년도 불교계의 명상 활용, 문화사업에도 예산이 편성돼 관련 사업들이 활기를 보일 전망이다.

종교문화사업 등을 지원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의 내년도 예산은 653억 원이며, △종교문화활동 195억 원 △전통문화유산보존 272억 원 △종교문화시설 124억 원 등이 세부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불교계 사업 예산들이 다수 새롭게 반영됐다. 동국대 진행하는 명상페스티벌과 조계종이 신청한 명상 활용사업에는 각각 5억 원과 2억 원이 편성됐으며, 조계종 중앙신도회 산하 (사)날마다좋은날이 5월에 개최 예정인 불교영화제에는 1억 원이 지원된다.

청도 운문사가 추진하는 '비구니 문화 체험관' 건립 불사에는 설계 비용을 포함해 5억 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이밖에도 조계종이 세종시에 건립하는 불교문화체험관에는 11억 원이 증액된 21억 원이 편성됐으며, 산사문화재 활용 사업에는 기존 6억 원에서 4억이 증액돼 10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개최되지 못했던 한중일불교도대회와 한일불교교류대회 예산도 내년 종무 예산에 반영됐다.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는 "문화재보유사찰은 문화재구역관람료를 통해 문화재를 관리해오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문화재보유사찰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번 지원으로 인해 내년 문화재보유사찰은 단기적으로나마 조금은 숨통을 트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 구심점 역할 할 컨트롤 타워 필요

**위기의 장애인포교 현주소와 과제**

㊤ 장애인포교 현황과 문제점
㊦ **장애인포교의 대안과 과제**

**기존단체 네트워크 토대로**
**큰틀에서 공통의 전략 필요**
**장애 유형별 포교매뉴얼 등**
**연구 · 실천과제 해결 나서야**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장애인 포교가 30년째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진정한 장애인 포교 활성화를 위해서는 큰 틀에서 포교전략을 수립하는 등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장애인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장애인포교는 기존 장애불자들의 신행지원을 넘어 젊은 세대 장애인들이 불교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는 형태로 발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단체들의 네트워크 구축 등 연대를 토대로, 비불자 장애인을 불자로 유입하기 위한 대안과 실천과제를 제시할 수 있는 구심점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장애인불자단체 관계자들은 우선적으로 기존 장애인불자회 등 관련단체에 소속돼 활동하고 있는 신도계층에 대한 신행지원과 잠재적인 불자계층을 향한 포교전략을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장애불자들의 경우 시각 · 청각 등 장애유형별로 소속돼 활동한다는 점에서 점자경전이나 영상컨텐츠 제공 등 지원방안이 명확한 반면, 비불자장애인들의 경우 그 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최명숙 보리수아래 회장은 "시각 · 청각 · 지체장애 외에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부 장애유형도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사실 이에 대한 인식은 현저히 낮다"며 "최소한 각 장애 유형별로 추천할 수 있는 사찰이나 신행방법, 불교컨텐츠 등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연구해 매뉴얼로 만들어야 불특정 다수의 장애인들을 포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다른 장애인불자회 관계자도 "불교에 관심을 가진 장애인이 설사 있더라도, 그들을 불교로 안내하고 조언할 수 있는 기본적인 매뉴얼조차 전무한 상황"이라며 "우리가 흔히 초보불자들에게 그 지역의 좋은 사찰이나 불교교양대학을 운영하는 사찰 혹은 불교를 배울 수 있는 콘텐츠를 추천하듯이, 지역별로 지체장애인이 참배하기 쉬운 사찰이나 법회의 수화통역 섭외가 가능한 사찰, 점자예불문이 비치된 사찰, 장애인들이 신행상담 및 불교교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찰을 소개할 수 있는 매뉴얼은 최소한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장애불자들의 신행 형태를 연구 · 조사하고 매뉴얼화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유형별 장애특성에 맞는 포교전략을 도출하는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서는 범불교 혹은 종단 차원에서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는 구심점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장애인 포교라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큰 틀에서 역량을 모은다면 개별 단체들이 각기 원력에 따라 활동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스님과 불자들을 대상으로 장애불자에 대한 에티켓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낮은 불교계에서 조금이나마 인식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문화컨텐츠 개발도 필요하다.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 언택트 문화가 급속히 확장되면서 장애인들이 보다 손쉽게 컨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됐기 때문이다. 젊은 장애인들이 불교에 관심을 가질만한 양질의 컨텐츠를 전략적으로 제작하거나 발굴해 활용한다면 잠재적인 장애인불자 범위를 넓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젊은 장애인들은 자신의 재능을 발굴하고 사회적 능력을 키워나가는데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이 불자로서 활동하는 동시에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양질의 프로그램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지역별로 장애인 신행을 지원하는 소임자 스님을 선임하는 방안, 사찰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지역별 · 장애 유형별 참배가 용이한 사찰 명단을 만들어 배포하는 방안에 대한 필요성도 지적됐다.

# "태고종, 보살계 수계로 종헌 · 종법 개정을"

**원로의장 도광 스님 '종단 정체성 탐구' 세미나서**



**現 구족계, 소승불교의 계율**
**'보살승' 지향 태고종과 모순**
**출가자 지위 확보, 향후 과제**

태고종의 모든 출가자는 빠짐없이 구족계(具足戒)를 수지하도록 종헌 · 종법에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구족계 수지는 보살승을 지향하는 태고종에게는 '모순' 이며, 모든 종도가 보살계를 수지토록 종헌 · 종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태고종 원로의장 도광 스님<사진>은 12월 4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1층 대회의실에서 태고종 총무원이 개최한 '한국불교태고종 정체성 탐구 제1차 학술세미나' 에서 현재 태고종 수계 전반에 대해 고찰하며 현 구족계에서 보살계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도광 스님에 따르면 '모든 계율이 완전히 구비됐다' 는 의미의 구족계는 그 수계 대상을 미혼의 비구, 비구니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구족계는 "초기불교 당시 세속의 삶을 포기한 비구와 비구니에게 음행을 근절학고 수행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 했던 부처님의 엄격한 지침" 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태고종은 출가자의 결혼을 허용하고 있으며, 재가자의 성직(聖職) 또한 인정하는 종단이기 때문에 구족계를 수지할 경우 율장의 가장 큰 죄인 바라이죄를 범하게 된다"는 게 도광 스님의 지적이다. 수계 문제 해결에 종단의 명운이 걸렸다는 도광 스님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어 도광 스님은 한국불교의 역사적 전통이 '대승불교' 에 있음에 주목했다. 대승불교가 지향하는 성취의 모델이 '보살' 에 있고, 이를 비탕하는 계율이 '보살계' 에 있기 때문이다.

도광 스님은 "〈범망경〉에서 '보살계' 는 '불성(佛性)' 과 동일시되고 있다. 불성이 모든 존재를 포함하듯이 보살계가 모든 존재를 포함하는 것으로 그려진다"면서 "보살계는 진리이며, 존재의 참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도광 스님은 역사적인 면에서도 대승불교보살계가 주류를 이루고, 관련 연구 문헌들도 보살계에 집중돼 있음을 강조했다. 실제, 고려시대 왕실에서는 매년 6월 15일 '보살계도량' 을 열고, 국왕이 보살계를 수계하는 것이 통례로 자리잡고 있었다.

도광 스님은 "소승의 구족계는 해동불교 역사 안에서 몇 권의 저술만 있었다는 기록이 있을 뿐, 현존하는 자료는 전무하며 흔적을 찾기 어렵다"면서 "1600년 한국불교 역사 안에서 고증이 가능하며, 실제로 실행됐던 계율은 대부분 대승보살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광 스님은 종헌 · 종법 개정을 통해 태고종과는 맞지 않는 구족계가 아닌 보살계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도광 스님은 "태고종 종헌 · 종법에는 출가자가 구족계만을 받아야 한다고 기재돼 있다"면서 "태고종은 다불다보살을 모시는 대승보살종단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따라서 태고종 종도라면 출 · 재가자를 포함해 보살계의 수계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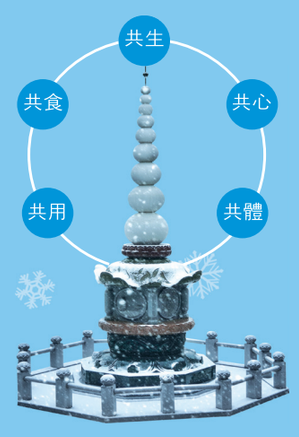
또한, 독신으로 금욕적 계율을 지키며 수행하는 종단 스님들을 위해서도 수계 범위를 넓힐 것을 주문했다. 도광 스님은 "독신 수행을 하는 종단 스님들의 수행방식도 태고종의 일부이며, 이들의 생각과 방편도 모두 인정돼야 한다"면서 "현재의 종헌 · 종법을 바로잡아 구족계 수계를 강제가 아닌 '선택' 의 문제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보살계로 통일 시 생기게 될 불법승(佛法僧) 삼보(三寶)로서 태고종 출가자의 지위에 대해서는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도광 스님은 "역사적으로 계율은 성직자로서 사회적 신분 부여의 공식적 의례 역할을 해왔다. 출가자의 지위는 전법사나 재가신도와 반드시 차등을 둬야 한다"면서 "이 문제는 법계고시와 관련된 종헌 · 종법 개정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향후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김방룡 충남대 교수, 김용태 동국대 교수, 경경집 진각대 교수 등이 태고 보우와 태고법통, 태고종조관 등에 종단 정체성과 관련된 학술 논문을 발표했다.

**신성민 기자**


# 제7회 계절발표회




대행선연구원에서는 대행 큰스님의 선사상과 교화행을 학술적으로 조명하여 널리 알리고, 아울러 중요한 불교사상을 집중 조명하여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매년 1회의 학술대회 및 4회의 계절발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학 또는 불교학 관련 전공학자들을 초청하여 발표하고 토론하는 제7회 계절발표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 일시 : 2020. 12. 19 (토) 13:30 – 17:40 ■ 장소 : 안양 한마음선원 본원 3층

**1부 / 개회식** (13:30 ~ 14:00)

**2부 / 발 표** (14:10 ~ 17:30)

제1발표
· 발 표: 윤소희(위덕대)
· 논 제: 한마음선원의 음악 운용 실태와 미래 방향
· 좌 장: 박범훈(불교음악원장)
· 논평1: 전영주(상명대)
· 논평2: 손인애(서울대)

제2발표
· 발 표: 인경스님(동방문화대학원대)
· 논 제: 대행스님의 주인공 화두명상
· 좌 장: 혜선스님(대행선연구원 연구실장)
· 논평1: 문진건(동방문화대학원대)
· 논평2: 이필원(동국대, 경주)

**폐회식** (17:30 ~ 17:40)

YouTube

2020년 12월 19일(토) (13:30 ~ 17:40)
유튜브 한마음선원 채널 생중계
YouTube 한마음선원 으로 검색하세요

발표방법 · 발표 : 30분 · 논평 : 10분씩 2인의 논평
· 토론 : 50분간 질의와 응답으로 진행

◈ 자료집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수 있습니다. ◈

한마음선원 생중계링크 : https://www.youtube.com/user/HanmaumTemple

대행선연구원 The Center for Daehaeng-Seon Studies
031)470-3276/3277 E-Mail : ds7788@hanmaum.org